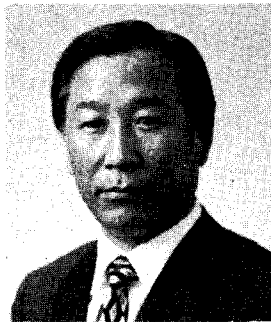


낙농경영의 안정대책



강 성 원

서울우유협동조합장
한국유가공협회장

우리나라 낙농은 낙농사상 유례없는 수난기(受難期)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싶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불황이 처음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79~'80년에 홍역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우리 낙농가들은 이대로 모두 멸망하는 것이 아닌가 할 만큼 위험을 실감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번 것은 좀 틀린다. 큰일 났다고 약도 써보지 못하고 줄줄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이다. 어쩌면 상당기간 헤어나지 못할 것같은 절망감마저 든다.

원인이 무엇일까? 정확히 무엇이라고 꼬집어서 묶어 내놓을 수는 없지만 복합적 요인(複合的 要因)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첫째, 낙농은 흔히들 우유의 생산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 뿐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낙농은 우유의 생산판매를 주로 하되 상당히 큰 비중으로 쇠고기 생산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젖소가 낳는 송아지의 1/2은 숫송아지여서 이를 키워 쇠고기로 판매하게 되며 경제수명(經濟壽命)이 다하여 도살하는 폐우(廢牛)도 소유성우(所有成牛)의 20% 안팎의 가격으로 이 역시 판매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낙농이란 우유의 생산판매를 위주로 숫송아지 또는 이를 비육하여 판매하고, 폐우의 판매 등을 포함하여 경영되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낙농경영에 있어 1/2 이상의 자금원이 되는 쇠고기 쪽이 1년전에 비해 숫송아지나 폐우나 할 것없이 1/3 가격밖에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우유의 소비가 급격히 둔화되어가고 있다. 내수경기(內需景氣)의 일반적 불황, 독극물사건의 후유증, 유사 유제품으로의 대체현상, 비우유음료(非牛乳飲料)의 소비확대 등 많은 요인들을 열거할 수 있겠으나 어느 하나도 낙농이나 유가공관계자의 힘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들 뿐이다.

셋째, 원유생산량의 증가추세와 소비증가추세(현재의 급격한 소비둔화는 일시적이다)보고 일반적 추세를 추정)와의 상관관계가 중요한 문제의 하나다. 절대물량은 계속 늘어나지만 원유생산은 두수의 자

·오늘의 현상을 일시적인 요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 일반적 경기 불황이 풀린후 얼마 안가서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할 것이 틀림없다·

연증가와 아울러 가축의 유량과 사양기술의 향상 등으로 15%에서 20% 선의 증가율을 지속할 것이 틀림 없는데 반하여 소비증가율은 다소의 기복은 있겠으나 서서히 낮아져서 십여년 후에는 5% 이하까지 내려갈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오늘의 현상을 일시적인 요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 일반적 경기불황이 풀린 후 얼마 안가서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가 처음에는 가볍게 그러나 날이 갈수록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할 것이 틀림없다.

이상과 같이 세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낙농과 유가공업은 어려움이 지나면 곧 편안한 때가 오지 않겠는가 하고 안심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구조적(構造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문제가 분석되었으니 그 해결방법 또한 어렵긴 해도 안출(案出)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해결방법을 논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다.

첫째, 기본문제로서 국가와국민의 의지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다. 우유나 쇠고기를 단순한 상품적 차원에서 본다면 비교우위적(比較優位的) 측면의 고려가 있을 뿐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민족의 생존을 보장하는 기본식량 차원에서 본다면 여하한 국제관계의 변화나 경제적 여건 심지어는 전쟁상태 하에서도 최소한의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는, 그래서 낙농의 기반은 절대 흔들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국가적,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없이 이 나라 낙농을 논한다는 것은 모래 위에

대궐짓는 것과 같이 허황된 얘기가 될 뿐이다.

둘째, 정신적 문제인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고질적 병폐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모두 이 정신문제를 올바르게 정립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해결책도 그 목적을 성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핵심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놓는 방법 등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어려운 상황이 생긴 것도 내 책임이 아니라 누군가 타인의 책임이요, 따라서 이를 해결할 책임도 나에게 전혀 없고 상대방에만 있다는 생각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가령 정부는 아무런 여건도 만들어 주지않고 또 지원도 적절히 하지않는 채 낙농가들은 왜 조사료는 조금밖에 안먹이고 농후사료 위주의 사양을 하는가? 낙농가는 모름지기 조사료를 증산하여 초식가축의 특성을 살려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낙농가의 분발만을 요구할 때 낙농가들은 자연히 정부를 비난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무엇을 우리에게 하라고만 요구하지 말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나라 낙농의 어려움을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정부나 낙농인이나 상호간 이유는 다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구조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즉 정부의 낙농의 기반확립 발전을 위해서 농민의 요구에 앞서 전진적으로 일하는 방향으로, 낙농인은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달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해야 하는

· 정부는 낙농의 기반확립 발전을 위해서 농민의 요구에 앞서 전진적으로 일하는 방향으로, 낙농인은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달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해야 하는가 하는 방향으로 서로 돕고 보태는 정신으로 나가지 않으면 결실을 거두기 어렵다·

가 하는 방향으로 서로 돕고 보태는 정신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어떠한 좋은 해결방법도 그 실(實)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야말로 우리는 낙농의 근본적 발전방법을 논의해야 할 단계에 왔다.

첫째, 계획생산제도(計劃生産制度)의 확립이 시급하다. 모든 농산물이 수시로 그 수급의 차질로 말미암아 끝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모르는 이 없다. 그러면서도 각 품목별로 단순한 계획생산제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기이(奇異)하다고나 할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낙농만이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생산제도를 확립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비의 증가에 맞추어서 그 만큼만 생산하는 계획을 말한다. 계획생산제도를 세우는 것만큼 어려운 정책이 없다. 그래서 거의 안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만은 모두 협력해서 기필코 이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둘째, 수입정책의 근본을 우리나라 낙농의 기반을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다. 우유시장을 직접 영향받는 것은 두말할 것 없지만 간접적인 것, 다시 말하면 합성하는 방법으로 우유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원료의 수입 등도 신중해야 할 것이다.

세째, 조사료의 생산기반의 확충으로 합리적인 낙농이 되게 하고 합리적인 낙농이 되도록 정부는 여건을 만들고 지도해야 할 것이며 나라의 돈도 좀 써야 할 것이다.

네째, 낙농인도 애써 공부하고 생각하여 생산원가를 낮추는 수많은 방법을 찾아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피땀 흘려 애쓰는 노력을 더욱 더 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나 우리 낙농인이나 다같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겠다.

